

북방기마민족의 유산

‘적석목곽분’

글_이종호 과학칼럼니스트 mystery123@korea.com

벨기에 작가 마테를링크(1862~1949)가 쓴 동화극 ‘파랑새’에서 주인공 치르치르와 미치르 남매는 옆집 마법사 할머니로부터 ‘병든 딸을 위해 파랑새를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개·고양이·빛·물·빵·설탕 등의 넘프(요정)를 데리고 추억의 나라와 미래의 나라 등을 방문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돌아온다. 꿈을 깨고 보니 자기네가 기르고 있는 비둘기가 파랑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데 그 새가 파랑새임을 깨닫는 순간, 새는 날아가 버린다.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파랑새처럼, 행복은 그 존재를 인식하기도 어렵지만 간직하기도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법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파랑새’는 1908년 스타니슬라프스키의 연출로 모스크바예술극장에서 상연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으며 마테를링크가 1911년 노벨 문학상을 받음으로써 더욱 유명세를 탔다. 이후 파랑새

라는 말은 ‘희망’의 대명사가 되었다.

신라가 북방 기마족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외국의 유산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끼고 잘 이해하지만 우리 나라의 유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무지하다. 오히려 우리 나라 것, 즉 우리의 유산 중에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정말로 있느냐고 반문한다.

한 마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파랑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경주 대릉원의 고분군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결코 뒤지지 않는 중요한 유산으로 작은 동산을 연상케 하는 천마총과 황남대총 등 23기의 고분들로 공원이 조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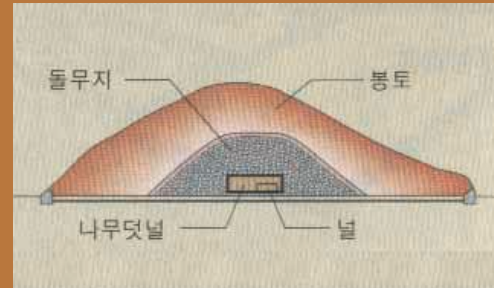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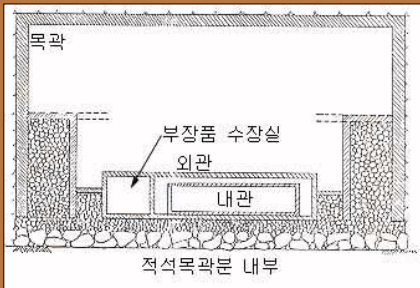
이들 고분군은 4~6세기 6대에 걸친 마립간 시대(내물-실성-눌지-자비-소비-지증마립간)에만 나타나는데 이를 적석목곽분(쿠르간)이라고 부른다. 이 고분군은 북방의 기마민족이 극동의 마지막 구역인 신라에 도착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신라의 적석목곽분이 세계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은 현대 문명의 출발과도 무관하지 않다. 현대 과학문명은 유럽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래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는 유럽이 아니었다. 기원전 500년경부터 그리스에 이어 로마가 득세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었고, 로마가 유럽의 거의 전부를 지배하고 있는 기간에 몇몇 아시아 민족이 유럽에 진출하긴 했으나 로마를 완전히 정복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로마를 멸망케 만든 직접적인 요인은 아시아 민족인 훈족(Huns, 흉노)이었다. 서기 375년, 기마민족인 훈족이 불가강을 건너 게르만족의 한 갈래인 동고트를 공격하자 동고트는



적석목곽분의 원형 통나무집. 북방지역에서 현지자나무로 지은 통나무집은 죽은 사람의 무덤을 만드는 기본구조이다. 이런 통나무집에 관(棺)과 부장품을 넣은 다음 그 위로 자갈돌을 쌓아 덮는 것이 적석목곽분이다(김정배 사진).



적석목곽분 구조도(천마총) 지상이나 지하에 사신과 부장품을 넣은 목곽을 설치하고 그 위에 냇돌을 쌓은 다음 흙으로 봉분을 만들었다. 도굴이 어려워 신라의 부장품이 많이 발견된 이유이다.

서고트를 공격했고, 서고트는 로마제국 영토로 들어가 보호를 요청했다.

게르만족이 로마 영토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된 지 100여년 후인 476년, 결국 서로마제국은 게르만족의 오도아케르에게 멸망했다. 이후 게르만족이 서유럽과 아프리카 북부의 각 지역으로 갈라지면서 유럽에는 새 국경이 그어졌고, 이 때 성립된 국경은 대부분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런데 서유럽에서 게르만족 대이동을 촉발시켰으며 현재의 독일, 벨기에, 프랑스 및 이탈리아 북부를 점령하는 등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제국을 풍전등화와 같은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훈족은 한민족 중에서도 가야·신라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 근래에 연구된 결과이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적 주장에 흥미를 갖는 사람들도 많지만, “무슨 얼토당토 않은 소리냐”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훈족이란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생소할뿐더러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서기 4~5세기경 한반도에 살고 있던 한민족이 어떻게

유럽을 공격할 수 있었겠느냐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훈족이 한민족의 일파라는 설명이 곧 한민족이 유럽을 직접 공격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흉노는 중국과 부단한 각축전을 벌이면서 끊임없이 부침을 거듭했다. 이 때 흉노에 속해 있던 한민족의 원류 중 일부가 서천(西遷)하면서 훈족으로 성장했고, 또 한 부류는 한반도 남부지역까지 동천(東遷)하여 현재의 우리 한민족의 일부가 되었다고 추정하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증거가 적석목곽분과 그 속에 있는 유물들이다.

신라, 6세기 이전까지 독자적인 문화 유지

한국에서 삼국시대라면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세 나라 중에서 고구려가 가장 강력하여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역사를 이끌었고, 백제와 신라를 거의 속국으로 거느리기도 했다. 백제도 일찍부터 중국문화를 받아들여 고구려와 문화가 비슷했다.

그런데 삼국의 초기 역사를 보면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고구려가 중국과 혈투를 벌이면서도 백제와 함께 중국과 조공 등을 통해 관계를 유지했지만, 신라는 중국과 관계를 일절 끊고 국교를 맺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공은 신속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국가간의 외교 관례였다.

이런 사실은 중국 사료를 통해 신라가 중국에 사절을 보낸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라는 진한(辰韓) 시대인 280년, 281년, 286년 서진에 사신을 보낸 이후 564년에 북제(北齊)에 사신을 보낼 때까지 278년 동안 고작 4회만 중국에 사절을 파견했다. 거의 해마다 중국에 사신을 보냈던 고구려나



경주 황남동 대릉원 고분군

백제에 비하면 신라와 중국의 관계는 전무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신라가 중국과 국교를 단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의 수용조차 거부하였음을 알려준다.

대부분 한국인들은 삼국 시대의 신라도 중국 문화를 받아들인 중국 문화의 그늘 아래 있었던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중국 문화 아래에 있었고 중국 문화 외에 다른 문화를 가졌다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신라에 중국으로부터의 불교문화가 도입되어 융성했다는 것은 사료나 유물로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신라가 중국 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6세기부터이며 이전에는 중국과 별도의 문화를 갖고 있었다. 즉 6세기를 경계로 신라는 과거부터 갖고 왔던 독자 문화를 포기하고 중국 문화를 수용하는 쪽으로 대폭 방향을 바꾼 것이다.

국가간의 외교 관계는 정치나 사회·문화적인 필요성 때문에 발생하는데, 소위 당대의 대국이라고 알려진 중국과 국교를 맺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신라로 보아서 중국이 절대 필요한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다.

달리 말하자면 신라는 중국의 정치·경제 제도를 다소간 도입한 백제나 고구려와는 달리 독자적인 체제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신라가 중국문화를 도입하기 전에 중국과는 전혀 다른 북방기마민족의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며, 신라의 대릉원, 즉 적석목곽분의 유물이 이를 증명해 준다.

황금대총에서 '비단벌레 장식 마구' 발견

북아시아·카자흐스탄의 이리강 유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카족의 대규모 고분의 크기는 지름이 30~100m로 거의 신라 고분 규모에 가깝다. 특히 지상에 목곽을 만들고 그 안에 목관을 놓고 주위에 돌을 채우고 다시 목곽을 돌로 빈틈없이 덮고 그 위에 봉토를 올리는 방식으로 신라의 적석목곽분과 유사한데 건립 연대가 B.C. 7~B.C. 3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카족을 스키타이 부류로 보기도 하므로 적석목곽분을 '스키타이-알타이의 쿠르간' 또는 '쿠르간'으로 줄여서 부른다. 그런데 이들 전형적인 북방기마민족의 무덤이 4세기 경부터 갑자기 신라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적석목곽분이란 땅을 파고 안에 나무로 통나무집을 만들고 시체와 부장품들을 안치한 후, 위에는 상당히 많은 돌로 둘러



스키타이의 쿠르간, 고분의 형태가 신라의 적석목곽분과 유사하다.

쌓고 흙으로 커다란 봉분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원래 북방 초원(스텝) 지역에서는 유력자가 죽으면 그가 생전에 살던 통나무집을 돌과 흙으로 그대로 덮어버린다. 그래서 스텝지역의 적석목곽분을 파보면 난방시설의 흔적도 남아 있고 심지어 창문도 발견된다. 신라에서는 신라 김(金)씨들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나타나는데 그들도 북방기마민족의 옛 전통에 따라 지상에 시신을 넣을 집을 만들고 그 위에다 냇돌을 쌓은 다음 흙으로 반구형(半球形) 봉분을 했다.

적석목곽분은 세월이 지나면 목곽 부분이 썩어 주저앉기 때문에 적석 중앙 부분이 함몰되어 낙타등처럼 된다. 봉토는 거의 대부분 원형인데, 적석 시설이 상당히 큰 규모이고 그것을 둘러싼 봉토 또한 대규모여서 신라의 고분이 고구려나 백제지역의 고분에 비해 상당히 대형화한 요인이다.

적석목곽분은 평지에 조성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경주, 창녕, 동래, 경산 등지의 경우 구릉지에 조성된 것도 있으며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중국, 일본에는 없는 무덤이다. 게다가 중앙아시아 대초원지대의 기마유목민족들이 즐겨 사용했던 각종 제품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금관과 장신구, 금으로 만든 허리띠, 띠고리(버클), 각배(뿔잔), 보검, 유리제품 등도 북방기마민족들이 즐겨 사용한 것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제품들이다.

특히 황남대총에서는 순금제 금관을 비롯해 실용적인 은관, 실크로드를 통해 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로만클라스 등 무려 7만여 점이 발견되었다. 그 중에서도 비단벌레(玉蟲)를 잡아, 그 날개수천 개를 장식하여 무지갯빛처럼 영롱한 자태를 뽐내는 '비단벌레 장식 마구(馬具)'도 발견되어 세계 학자들을 놀라게 했다. ⑤